

제 1 교시

틀리기 쉬운 우리말/우리글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빠른 정답>

#	정답	평가 영역	예상 난이도	배점
1	⑤	한글 맞춤법	하	1
2	④	한글 맞춤법	중하	1
3	③	한글 맞춤법	중	2
4	③	한글 맞춤법	중	2
5	④	한글 맞춤법	중상	2
6	④	한글 맞춤법	?	2
7	①	한국어 어법/어휘	중	2
8	⑤	한국어 어법/어휘	중상	2
9	②	한국어 어법/어휘	중하	2
10	④	한국어 어법/어휘	중상 ~ 상	2
11	③	한국어 어법/어휘	중상	2
12	⑤	한국어 어법/어휘	중	2
13	②	외래어 표기법	중하	1
14	①	외래어 표기법	?	2
15	②	외래어 표기법	중	3
16	①	한국어 어법/어휘	상	3
17	③	띄어쓰기	중하	1
18	①	띄어쓰기	중	2
19	④	띄어쓰기	상	2
20	②	띄어쓰기	상	3
21	④	표준 발음법	하	1
22	⑤	표준 발음법	중	2
23	⑤	표준 발음법	중상	3
24	⑤	한글 맞춤법	중	3
25	③	표준 발음법 + 한글 맞춤법	중	2

- 총 25문제, 50점 만점입니다.
- 1점짜리 문제 5개, 2점짜리 문제 15개, 3점짜리 문제 5개입니다.
- 전 문항에 걸쳐 출제 의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따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해설을 잘 읽어보시면 의도가 보일 것입니다.)
- 배점 기준은 난이도가 아닙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간단한 단어 문제나 발음 문제에는 1점을 부여하고 규칙의 ‘원칙’에 대해 묻는 문제에는 3점을 부여한다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1.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는? [1점]

- ① **찌개** ② **배개** ③ **벌레**
- ④ **부침개** ⑤ **내일모래**

해설: ‘내일모래’가 맞는 표기입니다.

풀정보: **그끄저께/그끄제**(3일 전) - **그저께/그제/재작일**(2일 전) - **어저께/어제**(1일 전) - **오늘** - **내일**(1일 후) - **모레/내일모레**(2일 후) - **글피**(3일 후) - **그글피**(4일 후)

삼작년/재재작년/그끄러께(3년 전) - **재작년/그러께**(2년 전) - **작년/지난해**(1년 전) - **금년/올해** - **내년**(1년 후) - **후년**(2년 후) - **내후년**(3년 후) *내후년은 ‘3년 후’입니다!

2.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단어는? [1점]

- ① **기웁** ② **디은** ③ **시웁**
- ④ **키웁** ⑤ **티글**

해설: 기역, 니은, 디귄, 리을, 미읍, 비읍, **시웁**,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을, 피읖, 히읇. 첫 글자의 초성과 뒤 글자의 종성은 항상 같습니다.

[3~4] 문맥 상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3.

- 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 ② 손님을 각뎡이 모셔라.
- ③ 쟁반을 깨끗히 닦았다.
- ④ 그릇을 반뎡이 정리해라.
- ⑤ 양 좀 넉넉히 달라고 했는데…….

해설: ‘-이’와 ‘-히’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그냥 외우는 게 빠릅니다. ‘-히’를 쓸 것 같지만 ‘-이’를 쓰는 단어로는 ‘간간이, 각뎡이, 깨끗이, 곰곰이, 깊숙이, 끔찍이, 나직이, 고즈넉이, 수북이, 축축이’ 등이 있습니다.

4.

- ① 쟁반에 커피를 받치다.
- ② 원고를 인쇄에 부치다.
- ③ 맞춤법 문제를 맞추다.
- ④ 주먹으로 바위를 부수다.
- ⑤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다.

해설: ‘맞추다’와 ‘맞히다’의 용법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해설에 그걸 다 적기에는 어렵습니다. 자주 쓰는 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자면 ‘맞추다’는 ‘결합’, ‘비교’, ‘조절’, ‘정렬’ 등에 사용하며, ‘맞히다’는 ‘적중’ 등에 사용합니다. 해당 문제는 ‘문맥 상’ 맞춤법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결합하거나, 비교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적중시키는 것이므로 ‘문제를 맞히다’라고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부딘히(치)다’ 등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디’에 ‘즈’받침을 사용합니다.

5. <보기>에서 맞춤법에 맞는 표기는 총 몇 개인가?

—<보 기>—
 잠그다, 옥여넣다, 건들이다, 짓궂다, 괴팍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건들이다’는 ‘건드리다/건들다’로 씁니다.

잠그다(O) 잠구다(X) / 옥여넣다(O) 우겨넣다(X)

짓궂다(O) 짓궂다,짓궂다 등(X) / 괴팍하다(O) 괴팍하다(X)

6. <보기>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총 몇 개인가?

—<보 기>—
 ○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일이 의도한 대로 되기는 고사하고 아주 우습게 되버렸다.
 ○ 이제 고등학생이 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요.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틀리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되’는 ‘하’로, ‘돼’는 ‘해’로 고쳐보고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면 됩니다.

- 잘못됐는지는 → 잘못했는지는? (x)

잘못됐는지는 → 잘못했는지는 (o)

- (의도한 대로) 되기는 → 하기는 (o)

(의도한 대로) 돼기는 → 해기는? (x)

- 되버렸다 → 하버렸다? (x) / 돼버렸다 → 해버렸다 (o)

- 되서 → 하서? (x) / 돼서 → 해서 (o)

- 되요 → 하요? (x) / 돼요 → 해요 (o)

꿀정보: ‘되다’와 비슷한 형태를 갖는 명사들도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뵈다’, ‘죄다’, ‘쇠다’, ‘괴다’, ‘피다’, ‘찌다’, ‘쪼다’ 등).

예) 이따 뵈요. (x) 이따 뵈요. (o)

아픈 기억이 자꾸만 내 목을 죄. (x) 아픈 기억이 자꾸만 내 목을 쥔. (o)

7. 다음은 민수가 제출한 어휘 퀴즈 시험지이다. 민수의 점수는? (단, 문제 하나 당 20점으로 계산한다.)

—<보 기>—
 Quiz: 혼동하기 쉬운 조사와 어미

이름: 최민수

- 1) (우리의, 우리) 소원은 치킨을 먹는 것이다.
- 2) 현지 (팬으로서, 팬) 인정합니다.
- 3) (대학이, 대학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 4) 내가 뭘 (하던,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 5) 제 말은 그게 (아니예요, 아니예요).

- ① 20점 ② 40점 ③ 60점 ④ 80점 ⑤ 100점

해설: 1) 관형격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는 있지만 ‘에’로 쓸 수는 없습니다.

2) ‘로서’는 지위나 자격을 나타낼 때 쓰이고, ‘로써’는 재료, 수단, 방법을 나타낼 때 씁니다. ‘현지 팬’은 자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지 팬이야! 라는 느낌이니깐 ‘로서’를 써야 합니다.

3) 주어가 무정명사(식물 혹은 무생물)일 때는 주격 조사로 ‘이, 가’ 대신 ‘에서’를 씁니다.

4) ‘-던’은 용언 뒤에 붙는 관형격 조사(‘달리던’, ‘먹었던’, ‘행복했었던’ 등) 혹은 ‘-더냐’의 친근한 표현(‘그 녀석은 잘 있던?’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든’은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오케이(‘그러든지’ 등)’라는 의미를 갖는 연결 어미입니다.

5)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에요’, 모음으로 끝나면 ‘-예요’가 붙습니다. 단 ‘아니예요’는 이러한 형태로 적습니다.

8. 문맥 상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인 것은?

- ① 마음에 드실런지 모르겠습니다.
- ② 그 둘은 떨러야 떨 수 없는 사이다.
- ③ 지나친 야유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하십시오.
- ⑤ 그래도 열심히 하노라고 했는데 말이지.

해설: ① ‘-르런지’는 ‘-르는지’의 잘못입니다. ‘드실는지’.

② ‘-르래야’는 ‘-려야’의 잘못입니다. ‘떨려야’.

③ ‘삼가하다’는 ‘삼가다’의 잘못입니다. ‘삼가’.

④ ‘염두하다’는 ‘염두에 두다’의 잘못입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⑤ ‘-노라고’는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꿀정보: ‘염두’는 ‘마음속’과 같은 뜻의 명사로, ‘염두하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기반’이라는 명사는 있지만 ‘-에 기반하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기반을 두다’라고 써야 합니다.

9. 잘못된 피동 표현을 어법에 맞도록 고칠 때, 잘못 고친 것은?

<보 기>

- 문제가 있는 것으로 ㉠ 보여진다.
- 컵은 액체를 담는 데 ㉡ 쓰여진다.
- 그는 사람들에게서 점점 ㉢ 잊혀져 갔다.
- 내가 합격했다는 사실이 ㉣ 믿겨지지 않는다.
- 비가 많이 와서 땅에 웅덩이가 ㉤ 꽤었다.

- ① ㉠: **보인다** ② ㉡: **쓰여진다**
 ③ ㉢: **잊혀** ④ ㉣: **믿어지지**
 ⑤ ㉤: **꽤다**

해설: 이중 피동은 ‘그러나 그러나 같다’며 예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 ①, ③, ④, ⑤ 이중 피동입니다. ‘보인다/뵈다’, ‘잊혀/잊어져’, ‘믿기지/믿어지지’, ‘꽤었다/꽤다’.
 ② 풀어 쓰면 ‘쓰이이어진다’로, 삼중 피동입니다. ‘쓰인다’.

10. 문맥 상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어색한 것은?

- ① 제발 제 일에 간여하지 마세요.
 ② 나는 요즘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
 ③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④ 종교적 믿음이 두터운 그는 절실한 기독교인이다.
 ⑤ 그는 자기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

해설: ‘절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써야 합니다(국립국어원, 2017). ‘신실한’도 쓸 수 있습니다.

- ① 간여하다: 어떤 일에 간섭하여 참여하다.
 ② 개발: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③ 빌리다: 일정한 형식이나 이론, 또는 남의 말이나 글 따위를 취하여 따르다. ‘이 자리를 빌어’는 틀린 표현입니다.
 ⑤ 일절: 아주, 전혀, 절대로.

풀정보: ‘일체’는 명사로 쓰이면 ‘모든 것’, 부사로 쓰이면 ‘전부’라는 뜻입니다. ‘일절’은 부사로만 쓰일 수 있으며 ‘절대’, ‘전혀’라는 뜻입니다.

11. <보기>에 해당하는 예시로 올바르게 않은 것은?

<보 기>

표준어가 반드시 하나로만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로 정해진 단어 중에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둘 이상의 단어를 모두 표준어로 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시대에 따라 국민들의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하여 비표준어였던 단어가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거나, 새로운 단어가 표준어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A]	[B]
①	어제 뭐 했니?	어저께 뭐 했니?
②	늑장을 부리다.	늣장을 부리다.
③	결국 사단 이 나다.	결국 사달 이 나다.
④	부부 간 금슬 이 좋다.	부부 간 금실 이 좋다.
⑤	접시를 깨뜨리다 .	접시를 깨트리다 .

해설: 사단: 사건의 단서. 또는 일의 실마리.

사달: 사고나 탈.

‘사단이 나다’라는 표현은 문맥 상 틀린 표현입니다.

풀정보: 강조의 뜻을 더하는 ‘-뜨리다’와 ‘-트리다’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예) ‘떨어뜨리다-떨어트리다’, ‘홀뜨리다-홀트리다’ 등

12. <보기>와 같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전략으로 잘못된 것은?

<보 기>

‘역전 앞’이라는 표현은 동의어를 불필요하게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역전(驛前)은 ‘역 앞’을 의미하므로 ‘앞’이라는 의미가 중복되는 것이다.

- ① ‘따스한 온기’를 ‘온기’로 고친다.
 ②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고친다.
 ③ ‘빨강색’을 ‘빨간색’ 혹은 ‘빨강’으로 고친다.
 ④ ‘낙엽이 떨어지다’를 ‘낙엽이 지다’로 고친다.
 ⑤ ‘안절부절못하다’를 ‘안절부절하다’로 고친다.

해설: ‘안절부절하다’는 ‘안절부절못하다’의 잘못입니다.

- ① ‘따스한’과 ‘온(溫)’이 겹칩니다.
 ② ‘과(過)’와 ‘이상’이 겹칩니다.
 ③ ‘빨강’ 자체가 색깔입니다. 뒤에 ‘색’을 붙여 줄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파랑/파란색, 노랑/노란색, 하양/하얀색 등.
 ④ ‘낙(落)’과 ‘떨어지다’가 겹칩니다.

13. 다음 중 외래어표기법에 맞는 단어는? [1점]

- ① **부페** ② **쿠데타** ③ **데자뷰**
 ④ **몽타주** ⑤ **바리깡**

해설: 위 5가지 단어는 모두 프랑스어에 기반을 둔 외래어입니다.

- ① 뷔페 / ③ 데자뷰 / ④ 몽타주 / ⑤ 바리깡

풀정보: ‘데자뷰(Deja Vu)’는 아직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하지만 널리 쓰는 말이니 곧 등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언어는 계속 바뀌는 것이니까요.

14. 외래어표기법에 어긋나는 문장은?

- ① 우리 **팀**, **화이팅**!
 ②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다.
 ③ **멜런타인데이** 때 **초콜릿** 줄 사람은 있니?

- ④ 이 **티셔츠**는 여성을 **타깃**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⑤ 분홍색 **카디건**을 입은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지.

해설: ‘화이팅’은 ‘Fighting’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영어의 F는 ‘프’로 표기해야 합니다.** ‘화이팅(Fighting)’, ‘훼미리(Family)’, ‘화일(File)’, ‘호일(Foil)’ 등은 모두 **일본식 영어 발음**입니다.

- ② 캐럴(O) 캐롤(X)
 ③ 밸런타인데이(O) 발렌타인데이(X), 초콜릿(O) 초콜렛(X)
 ④ 타깃(O) 타겟(X)
 ⑤ 카디건(Cardigan)(O) 가디건(X)

15. <보기>는 외래어표기법 제3장제1절(영어 표기)의 내용이다. 이를 참고하여 외래어의 표기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2항. 유성 파열음 ([b], [d], [g]) :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제3항. 마찰음 ([s], [z], [f], [v], [θ], [ð], [ʃ], [ʒ])

1.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오는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2.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 ... (후략)

- ① **ad-lib** - 애드리브 ② **lobster** - 랍스터
 ③ **flash** - 플래시 ④ **shrimp** - 슈림프
 ⑤ **chef** - 셰프

해설: 제2항에 따라 ‘lobster’는 ‘로브스터’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외래어표기법에서는 널리 쓰여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은 따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제는 ‘랍스터’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어 곧 ‘랍스터’라는 표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의 요지는 <보기>에서 준 외래어표기법의 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것이었으므로 답은 <보기>의 원칙에서 벗어난 ②번이 되겠습니다.

풀정보: ‘sh(f)’의 표기는 틀리기 쉬운데, ‘샤’, ‘새’, ‘셰’, ‘쇼’, ‘슈’, ‘시’로만 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예) 새도(O) 세도우, 쉐도우(X)
 셰이크(O) 쉐이크(X)
 슈림프 피자(O) 쉬림프 피자(X)
 잉글리시(O) 잉글리쉬(X)

16.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문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보 기>—

글을 쓸 때 흔히 강조하는 ‘㉠ 우리말답게 쓴다’는 것은 곧 ‘말하는 듯이 자연스럽게 쓴다’는 뜻이다. ‘하나의 사과’를 단순히 일본어투라서 쓰지 말자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사과 하나’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즉, ‘우리말다운’ 어법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말투를 살리자는 것이다. 다소 어려운 한자어이든, 낯선 외래어이든 그것이 우리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엔 우리말다운 고유의 틀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언어체계에 녹아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 홍성호, <짧고 쉬운 문장이 최고?>

- ① **내가 부자이면 좋겠다.**
 ②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③ 우리 대표팀**에게** 프리킥 기회가 **주어집니다.**
 ④ 메시의 왼발은 호날두의 **그것**보다 뛰어나다.
 ⑤ 끝없는 절망에 빠진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말았다.**

해설: ㉠은 번역 투의 문장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번역 투의 문장은 그 자체로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말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어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과 억지로 호환하려 할 경우 이해를 방해하거나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글을 쓸 때도 번역 투의 문장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①번의 ‘~이면 ~하겠다’는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입니다. 단, ‘~였으면 ~하겠다’는 시제가 맞지 않으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는 영어의 가정법 과거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② ‘좋은 시간을 가지다’는 ‘have a good time’을 직역한 표현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다’로 쓰는 것이 낫습니다.
 ③ ‘free-kick is given’을 직역한 표현으로, ‘프리킥 기회를 잡습니다’ 등으로 쓰는 것이 낫습니다.
 ④ ‘그것’은 영어의 ‘that’을 직역한 표현입니다. 한국어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영어 that의 대응어로 ‘그것’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앞에 쓴 단어를 한 번 더 써 주는 것이 낫습니다. ‘메시의 왼발은 호날두의 왼발보다 뛰어나다.’로 말이죠. 아니면 아예 문장 구조를 바꿔 ‘메시는 호날두보다 왼발을 잘 쓴다.’ 등으로 바꿔 쓰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로, 우리말에서 ‘~의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소 말하기 민망한 내용인 경우(예를 들면 ‘남자의 그것’)에 사용합니다.
 ⑤ ‘find myself ~’를 직역한 표현으로, ‘나는 끝없는 절망에 빠졌다.’로 의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17. 다음 중 띄어쓰기를 잘못한 단어는? [1점]

- ① **한마디** ② **지난날** ③ **전세계**

④ **별말씀**

⑤ **우리나라**

해설: ‘전(全)’은 단어(관형사)이기 때문에 ‘세계’와 띄어 씁니다. ‘한 남자, 새 신발’ 등을 띄어 쓰듯이 말이죠.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은 ‘단어 단위로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입니다.

비슷하게 ‘전국민’도 ‘전 국민’으로 써야 합니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씁니다.

18.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 ① **방학 동안** 뭐 하고 지냈니?
- ② **예습은 커녕** 숙제도 안 했어요.
- ③ **2시 쯤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④ 거울을 보니 나는 **사과 같이** 예쁘군.
- ⑤ 너에게 **용서받기 보다** 죽는 게 더 쉬울지 몰라.

해설: 앞서 말했듯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은 ‘단어 단위로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입니다. ‘② 커녕, ④ 같이, ⑤ 보다’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③ 쯤’은 접미사로 단어가 아니므로 붙여 씁니다. 그러나 ‘① 동안’은 의존 명사(홀로 쓰일 수 없는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단, ‘**그동안, 한동안, 오랫동안**’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씁니다.

풀정보: 홀로 쓰일 수 없고 앞에 무언가가 붙어야 하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아래 예시에서 밑줄 친 것이 의존명사입니다.

예) 나도 할 수 있어. / 그저 열심히 할 뿐이다.
그건 내가 열심히 하기 나름이다.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등이 있다.

19.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 ① 곧 비가 **울듯하다**.
- ② 또 하루 **떨어져간다**.
- ③ 나 좀 집까지 **데려다줄래?**
- ④ 동전이 강물에 **떠내려가버렸다**.
- ⑤ 화를 **넌만하니까** 화를 냈겠지.

해설: 보조용언은 앞의 본용언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단, 어절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의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떠내려가 버리다(O) 떠내려가버리다(X), 덩벼들어 보다(O) 덩벼들어보다(X) 등). 또한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갈 때도 띄어 써야 합니다(떨어져만 간다(O), 떨어져만간다(X) 등). 간혹 단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은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나가 버리다(O) 나가버리다(O), 손대 보다(O) 손대보다(O) 등).

③번의 ‘데려다주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④번의 ‘떠내려가’는 합성동사이므로 보조용언 ‘버리다’와 띄어 써야 합니다.

풀정보: 동사와 형용사를 합쳐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 어휘적인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보조동사의 예)

기억력이 쇠퇴해 가다. / 숙제를 대신 해 주다.

사과를 먹어 보다. / 접시를 깨뜨려 버리다.

힘으로 막아 내다. /

보조형용사의 예)

우리 팀이 이긴 듯하다. / 일이 할 만하다.

비가 올 법하다. / 정말 보고 싶다.

주의사항: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보조용언은 ‘-가다, -내다, -주다(드리다), -버리다, -척(체)하다,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싶다’가 있습니다(한글맞춤법제5장제3절제47항). 이외의 보조용언(‘-싶다, -아니하다’ 등)은 띄어 써야 합니다.

20. <보기>에 해당하는 예시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물론 띄어쓰기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실제로는 원칙보다 허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

- ① ‘1 시간’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시간’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 ② ‘프랑스 인’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프랑스인’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 ③ ‘이산화 탄소’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산화탄소’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 ④ ‘서울 대학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대학교’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 ⑤ ‘제2 차 세계 대전’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해설: ‘프랑스인’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며 ‘프랑스 인’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①, ③, ④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⑤번의 ‘제2차/제2 차’는 ‘제 2차’로 쓸 수 없습니다. ‘제’와 다음에 오는 숫자는 반드시 붙여 써야 합니다(제1회/제3장(O) 제 1회/제 3장(X)).

2017년에 개정된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면, ‘인(人), 어(語), 족(族), 왕(王), 강(江), 산(山), 해(海), 곳(串), 만(灣), 관(關), 부(部), 성(城), 주(州), 가(街)’ 등은 앞말이 고유명사인 이상 모두 붙여 써야 합니다. ②번을 올바르게 고쳐 쓰면, ‘프랑스인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며 프랑스 인으로는 쓸 수 없다.’가

됩니다.

21. 표준 발음법에 의한 옳은 발음이 아닌 것은? [1점]

- ① 밀짚[밀쩍] ② 밥맛[밥만]
 ③ 급류[급뉴] ④ 실낱[실낫]
 ⑤ 복넙[봉넙]

해설: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등을 이용하여 발음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④번 ‘실낱’은 유음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실란]으로 발음됩니다.

꿀정보: 유음화는 ‘ㄹ’과 붙어 있는 ‘ㄴ’이 ‘ㄹ’로 발음되는 음운 현상을 말합니다. 예컨대 ‘신라’는 [실라]로, ‘설날’은 [설랄]로 발음됩니다.

주의사항: 유음화 현상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단어가 몇 개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란 [의 : 견난] / 임진란 [임 : 진난] / 생산량 [생산냥]
 결단력 [결판녁] / 공권력 [공권녁] / 동원령 [동 : 원녕]
 상건례 [상건네] / 횡단로 [횡단노] / 이원론 [이 : 원논]
 입원료 [이뵤뇨] / 구근류 [구근뉴]

물론 유음화를 적용하여 발음해도 다 알아듣고, 유음화가 적용된 발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하므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2.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것은?

- ① 강아지가 내 발가락을 자꾸 핥는다. / [할른다]
 ②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 [음는다]
 ③ 왜 또 웃은 출게 얹게 입었어? / [알게]
 ④ 맑고 투명하게 살겠습니다. / [말꼬]
 ⑤ 답을 고아 몸보신을 했다. / [다글]

해설: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등을 바탕으로 겹받침 발음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⑤는 연음하여 [달글]로 발음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겹받침 ‘래, ㄹ,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해야 합니다. 그런데 ‘래’는 예외가 두 가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동사 ‘뵈-’은 [뵈-]으로 발음하고, ‘넙다’의 파생어(‘넙둥글다, 넙적하다’ 등)는 [넙-]으로 발음합니다.

23. <보기>에 해당하는 예시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준 발음법을 정함에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맛있다’는 실제 발음에서는 [마싣따]가 자주 쓰이나 두 단어 사이에서 받침 ‘ㅅ’을 [ㄷ]으로 발음하는 [마딤따]가 오히려 합리성을 지닌 발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마딤따]를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정하되, [마싣따]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 ① ‘효과’와 ‘교과서’는 각각 [효과], [교과서]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효과], [교과서]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② ‘분수’와 ‘함수’는 각각 [분쑤], [함쑤]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수], [함수]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③ ‘외상’과 ‘회상’은 각각 [외상], [회상]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웨상], [훼상]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④ ‘주의’와 ‘협의’는 각각 [주의], [혀비]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이], [혀비]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⑤ ‘의미하다’와 ‘희미하다’는 각각 [의미하다], [희미하다]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하다], [히미하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해설: ⑤ 의미하다[의미하다], 희미하다[히미하다]로 발음해야 하며, 허용은 없습니다.

- ③ 단모음 ‘ㅁ’의 원래 발음은 현대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이중모음으로서의 발음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단모음으로서의 [ㅁ]발음만을 인정해야 하겠으나, 표준 발음법에서는 현대인의 실제 언어생활을 고려하여 ‘ㅁ’를 ‘ㅁ’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④⑤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ㄴ’은 [ㄴ]발음만을 인정해야 하겠으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발음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ㄴ’의 발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ㄴ’은 이중모음 [ㄴ]로 발음한다.
 2) ‘ㄴ’, ‘희’와 같이 자음과 같이 쓰일 때는 [ㄴ]로 발음한다.
 3)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ㄴ]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따라서 ④번은 맞고 ⑤번은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꿀정보: ‘ㅁ’의 원래 발음이 궁금하시다면 ㅁ(전설 원순 중고모음)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ㄴ’의 원래 발음도 현대 발음과는 약간 다른데, 궁금하시다면 y(전설 원순 고모음)을 검색해 보세요.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 명사를 이룰 때, 그 사이에 덧생기는 소리를 사잇소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바다’와 ‘가(街)’가 합쳐진 단어는 [바다까]라고 발음 되는데, 뒤 음절에 생긴 된소리가 바로 사잇소리이다. 어떤 단어에 사잇소리가 있고 단어를 구성하는 두 요소 중 적어도 하나가 고유어일 때는 두 요소 사이에 ㉠ 시옷(ㅅ)이 삽입되는데, 이를 사이시옷이라고 한다. ‘바다’와 ‘가’가 합쳐진 단어가 ‘바다가’가 아니라 ‘바닷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첫째는 두 요소 중 앞의 것(제1요소)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길가’, ‘강가’는 각각 [길까], [강까]로 발음되지만 앞의 요소인 ‘길’, ‘강’이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24. 위 글을 참고하여 ㉠과 ㉡에 해당하는 예시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①	머릿속	마음속
②	등꽃길	밤길
③	공깃밥	아침밥
④	절댓값	집값
⑤	소숫점	꼭지점

해설: ⑤ 각각 ‘소수점’, ‘꼭지점’입니다.

(1) ‘어떤 단어에 사잇소리가 있고 단어를 구성하는 두 요소 중 적어도 하나가 고유어일 때’ 사이시옷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小數)’, ‘점(點)’은 둘 다 한자입니다. 따라서 [소수점]으로 발음되더라도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2) ‘꼭지+점’은 [꼭찌점]으로 발음되고 ‘꼭지’가 고유어이며 자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이 생길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꼭지점’으로 적어야 합니다.

본문만 제대로 읽었다면 쉬운 문제였습니다.

꿀정보: 사이시옷이 생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데도 사이시옷이 없다면 사잇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해님’은 자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해+님’으로 두 성분 모두 고유어이고 [해님]이라고 발음되는 것 같은데 왜 ‘해님’이라고 쓰지 않을까요? 바로 ‘해님’의 표준 발음은 사잇소리가 없는 [해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으로 발음되어 ‘부뭇님’으로 적지 않습니다.

25.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올바른 맞춤법 및 발음법을 가장 정확히 추론한 것은?

—<보 기>—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① 뒗쪽[뒗쪽] ② 벼짚이[벼찌피]
③ 핏자국[핀자국] ④ 붓꽃이[부꼬치]

⑤ 늦바람[느빠람]

해설: ② 벼짚[벼짚/벼찹]과 주걱 조사 ‘이’가 연음되어 [벼찌피/벼찌피]로 발음됩니다.

① ‘뒤+쪽’은 [뒤쪽]으로 발음되지만 ‘쪽’의 된소리는 사잇소리 아니라 원래 [ㅈ]의 발음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뒤쪽’으로 표기하며, 발음도 [뒤쪽]입니다.

③ ‘피+자국’은 [피짜국]으로 발음되며, 사이시옷이 생길 조건을 만족하므로 ‘핏자국’으로 적습니다.

④ ‘붓’의 ‘ㅅ’은 사이시옷이 아니라 원래 있던 ㅅ이므로 <보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꽃]으로 발음됩니다. 주걱 조사 ‘이’와 연음되어 [분꼬치]로 발음됩니다.

⑤ ‘늦’에는 사이시옷은커녕 그냥 ㅅ조차 없습니다. [느빠람]으로 발음됩니다.

지겹고 짜증났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문제지 또는 해설지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단 상업적 사용은 불가합니다.)